

순창군옥천장학회, 2026년 옥천장학회 장학금 지원

순창군이 최근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군수에서 순창군의 중·고등학교 생 68명에게 총 3,84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6월에 신청을 받아 총 72건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8명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 △일반 장학금(고등학교생 학업우수자) △예·체능 특기생 △예·체능 학원비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며, △일반 장학금 45명(총 2,250만원) △예·체능 특기 장학금(개인) 10명(500만원) △예·체능 학원비 지원 13명(1,096만원) 등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여도, 스포츠테니스 학생들이 포함됐으며, 학원비 지원은 미술, 메이크업, 미술 등 예능 9명, 합기도 등 체육 4명에게 돌아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금동 지사협, '냉장고를 부탁해' 식료품 나눔

남원시 금동관계자에 의하면 동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인술)가 지난 8월 19일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부 확인 및 '냉장고를 부탁해' 식료품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해 추진, 협의체 위원들은 햇반, 참치, 김, 라면, 국거리 3종 등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기트 형태로 손수 정성을 담아 제작하였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폭염과 장마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복지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테러 대응·화재 진압 합동훈련

남원소방서는 지난 2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6년 을지연습 훈련'으로 민·관·군·경 합동 테러 대응 및 화재진압 시연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적 특수부대의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폭탄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에는 남원시, 제773부대 3대대, 남원경찰서, 남원의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남원소방서는 총기 난사 및 폭발물 폭발로 인한 건물 화재 발생과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다. 소방 지휘차를 비롯해 펌프차, 구급차, 화학차 등 장비 4대와 인력 13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교육 현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유·초·중·고 교원 대상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의료 협력으로 아동 보호 안전망 구축

전북대학교병원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광역 새싹집킴이병원(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은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은 아동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행동 특성을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만큼, 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와 보호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요령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 변화와 신체적·정서적 징후를 살펴보는 방법도 소개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취해야 할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교육 참여



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육 현장과 의료기관 간 아동보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보호와 의료·지원 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교육 현장과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교직원들의 아동학대 발견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무주소방서, 민방위 훈련과 연계 CPR 실습

무주소방서는 지난 20일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무주 남대전휴먼시아'에서 실시된 2026년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 공무원과 주민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익히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마네킹 활용 심폐소생술(CPR) 실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완강기 체험과 소화기 활용법, 화재 대피 요령 등 실생활 생존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주소방서, 수어통역사 소방안전교육 실시

장주소방서(서장 정지현)는 장수수어통역센터 소속 신소희 수어통역사가 지난 19일 진행된 '제2기 수어통역사 및 특수학교 교직원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과 소방대원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다리 역할을 하는 수어통역사의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화재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적 언어인 수어로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법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통역사 본인의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에 수어통역사가 화재 진압 및 구급 상황을 직접 체화하여 명확하게 안전 정보를 통역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과정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은 △소용유 화재 대처법 △목내소화전 전개 실습 △심폐소생술(CPR) 등 재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위주로 진행됐다. /장수=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6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김제시는 지난 20일 김제시 2026년 2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무원 5명에게 표창장과 지역상품권을 수여했으며, 시상 후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실적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 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 시장은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시민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 김제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829-6677

익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